

이제 모두 세월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 갔지만 더 수궁돌담길엔 이직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뮤지컬로 부활한 '광화문 연가'

4월 광주, 그리움을 만난다

지난 2008년 2월 14일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영훈 작곡가에게는 오랜 꿈이 있었다. 자신이 만든 노래로만 오롯이 구성된 뮤지컬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가 1986년 이문세를 통해 발표했던 음반에 실린 곡은 '난 아직 모르잖아요' '소녀'였다. 이 음반은 그해 150만장 이상 팔렸고, 이듬해 나온 4집 역시 골든 디스크상을 수상했다. '사랑이 지나가면', '이별 이야기', '그녀의 웃음 소리 뿐', '가을이 오면', '깊은 밤을 날아서' 등 수록곡 전곡이 메가히트를 기록했다.

▲'사랑이 지나가면' 등 30곡으로 구성

이영훈이 뮤지컬 '광화문 연가'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부터였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작품의 시놉시스를 직접 쓰며 애정을 가져왔던 작품으로 그와 함께 뮤지컬을 준비했던 '남겨진' 친구들이 그의 '미완의 꿈'을 완성시켰다.

창작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광주에서 공연된다. 4월 22일(오후8시), 23일(오후3시·7시30분), 24일(오후 3시) 광주문화예회

관 대극장.

가사까지 모두 직접 쓴 그의 노래들은 '사랑'이라는 테마를 담고 있다. 뮤지컬 역시 1980년대를 배경으로 유명 작곡가 상훈, 그를 따르는 현우,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을 받는 여인 여주의 이야기를 그린 멜로물이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아련히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뮤지컬에 삽입된 곡은 작품 제목인 '광화문 연가'를 비롯해 '붉은 노을',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 모두 30여곡이다.

아바의 노래로 만든 '맘마미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진짜 좋아해' 등 대중가요를 이용한 주크박스 뮤지컬은 여러 제작되었다. 하지만 단일 작곡가의 노래만으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건 '광화문 연가'가 처음이다.

이영훈의 노래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슈퍼스타K2'에서 출연자들이 그가 만든 노래를 불렀던 이문세의 곡들만으로 경쟁을 했고 정우성·임수정 이 출연한 커피 광고에 '소녀'가 쓰이는 등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

▲최고의 출연진과 스텝

주인공 '상훈' 역은 뮤지컬 배우 출신으로 최근에는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감성있는 연기를 펼친 송창의와 '헤드윅', '하드락 카페'에 이어 다섯번째 뮤지컬에 도전하는 윤도현이 더블캐스팅 됐다. 윤도현은 이영훈의 유작인 '옛사랑' 앨범에도 참여했었다.

여주인공 '여주' 역은 가수 출신으로 뮤지컬 '대장금' 등을 통해 가창력을 인정받은 리사가 맡았으며 차세대 뮤지컬 스타로 꼽히는 김무열, 인기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리더 보컬 양요섭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제작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대본은 이영훈과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임영근씨가 함께 썼으며 각색과 연출은 뮤지컬 '서편제', '대장금', '헤드윅', '바람의 나라' 등을 무대에 올렸던 이지나가 맡는다. 또 음악감독으로는 '맘마미아', '미스 사이공', '명성황후' 등에 참여하며 더 뮤지컬 어워즈 등에서 수상한 김문정씨가 참여한다.

티켓가격 11만원~5만5000원. 문의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

§'광화문 연가' 시놉시스

1980년 광화문 7거리에 위치한 라이브 카페 블루아지트. 유명 작곡가인 상훈과 그를 따르는 현우는 그곳에서 여주를 만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간다. 상훈의 소원으로 완성된 현우 곡이 시위 현장에서 유명처럼 번지고, 현우는 경찰에 연행된다. 풀려난 현우를 돌봐주던 여주는 현우와 사랑에 빠지고 행복향 시간을 보내지만 현우가 다시 연행되면서 상훈은 여주를 돌보기 시작하는 데...

광화문 연가



■황영성 신임 광주시립미술관장

“미술관 문턱 낮춰 누구나 찾을 수 있게”

국제 교류 통해 지역작가 해외진출 늘릴 것

서울 인사동 분관·북경창작센터 발전시켜

광주시는 8일 공식이던 광주시립미술관에 지역 원로화가 황영성(70) 화백을 선임했다.

이날 가진 인터뷰에서 황관장은 '고향의 저녁 밥상 같은 편안한 느낌의 '가족 이야기' 연작에 몰두했던 작가답게 미술관의 문턱부터 낮추겠다고 했다.

"시민들이 높은 단계의 미적 향수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시하고 유도하는 게 미술관의 일입니다. 시민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람객들을 늘려 가겠습니다."

그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미술관의 접근성을 꼽았다. 현재 북구 중외공원 내에 위치한 미술관 진입로 찾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 시민들이 쉽게 미술관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 작가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미술관의 중요한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미술관이 개설한 서울 인사동 분관(갤러리 라이트)과 북경 창작센터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겁니다. 지역 작가들의 전시·창작 공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들이 단순히 그 공간에 머무르면 안돼요. 현지(중국) 미술 전문가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신임 미술관장으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유능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미술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강조했다.

"관장직을 제의 받았을 때 '나는 한창 작업을 해야 하는 선수이지 감독이 아니다'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전시를 많이 한 만큼 내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았고, 그 경험을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더더군요."

광주비엔날레와 미술관의 긴밀한 협조에 대한 예정되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광주 작가를 알릴 수 있도록 미술관에서 더욱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늘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작가를 찾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 또한 우리 작가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비엔날레를 통해 지역 작가들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미술관은 이를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립미술관이 광주 작가의 전시만 고집하지 말고, 해외 작가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스런 국제 교류를 통해 해외 미술관도

■황영성은

조선대 미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제25회 몬테카를로 국제회화제 특별상(1991년)과 금호미술상(1993년) 등을 수상했다. 1980년대 말 마야, 잉카 등의 문화를 접한 뒤 '가족'에 대한 종전 작업을 '세계로 열린 가족 이야기'로 확대시켰다. 그 후 프랑스, 영국 등에서의 작품표표를 통해 국제화단의 주목과 평가를 이끌었다. 지난 2004년 대구시가 선정하는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했다.

우리 작가의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한다는 것이다.

또 미술관의 가장 큰 재산인 소장품 구입과 기존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호한 철학을 내놴다. 무턱대고 구입작품 수를 늘리고, 기준을 받으면 소장품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작품을 골라서 구입하고 기증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경기 침체로 젊은 작가들이 전시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요. 더 많은 시민들이 미술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 미술을 돕는 길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시민들을 위한 미술관을 만들겠습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미술관장 직급 4급 대우서 2급 대우로

광주시가 일반직 공무원 4급 대우였던 시립미술관장의 직급을 국립현대미술관 수준인 2급 대우로 올렸다. 또 미술관장을 보좌할 수 있는 부관제 신설도 논의 중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이 3급인 점을 감안

안하면 과격적인 대우이며, 이를 통해 향후 유명 전문가를 관장으로 영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됐다.

한편 지난 1997년 미술관 운영과 함께 광주비엔날레도 총괄했던 강연균 전 관장이 2급 대우를 받았지만 이후 다른 지자체 수준인 4급으로 하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 꿈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 짓!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여 년 동안 학대피해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